

## 동아시아, 근대를 번역하다: 문명의 전환과 고전의 발견

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편, 서울: 점필재, 2013

양치차오의 신대륙유기(1903): 근대 중국 계몽주의의 기향지

### 1. '신대륙유기'를 보는 독법

\* 양계초의 신대륙유기는 그가 자유주의를 버리고 국가주의로, 민권에서 국권으로, 루소에서 부룬출리로 간 것을 의미하는가?

\* Philip Huang: 자유주의를 중국 내셔널리즘과 결합시켜 서구의 자유주의를 왜곡시켰다.  
(Philip C. Huang, 1972. Liang Ch'i-ch'ao and modern Chinese liberalism. Seattle: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)

\* Hao Chang: 서양의 민주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상적으로 군체 우위로 개인을 부차화함  
(Hao Chang, Liang Ch'i-ch'ao and intellectual transition in China, 1890-1907. Cambridge, Mass.: Harvard University Press)

\* 양계초: 미국 유람 후 공화정을 버리고 국가주의 혹은 전체주의로 전환함은 분명, 그 원인은?

\* 미국은 공화파와 연방파가 있는데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연방파라고 양계초는 봄 -> 미국을 공화나 자치보다는 중앙집중화의 나라로 봄 -> 이후 중국 개혁의 방향을 개명전제로 선회함

\* 양계초는 대중정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앵글로색슨적 연방주의를 옹호한 James Bryce의 The American Commonwealth의 영향을 크게 받음: 대중정치에서 대통합으로 향함

\* 양계초의 변화는 반동적인 것으로 보이나, 신해혁명 이후 군벌의 득세는 그의 논의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만듦

### 2. 1903년의 전환을 보는 시각들

\* 샌프란시스코의 화교를 보고 중국에는 민주공화국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의견, 스승 강유위의 입헌군주와 보황주의를 물리칠 수 없었으며 양계초는 민주공화국과 입헌군주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는데 신해혁명 이후 다시 공화국을 지지한 것을 보면 당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, 양계초 언술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일순 개명전제론에 이끌린 감정적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음

\* 필자 -> 양계초는 미국을 통일적 구조로 보고 신대륙유기의 이해는 태평양 시대의 도래라는 중국의 위기라는 배경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

### 3.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중국의 위기

#### 1) 먼로주의에서 제국주의로

\* 루즈벨트의 태평양 시대론과 제국주의론을 인상 깊게 접함 -> 샌프란시스코  
-루즈벨트는 태평양 해상권의 장악여부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봄 -> 문명서점 -> 양계초에게 강한 영향을 줌

\* 문명서점론은 미국의 중요성을 일깨움 -> 양계초의 유럽 중심주의를 바꾸는 계기가 됨

\* 루즈벨트를 통해 본 미국에 대한 재인식  
- 먼로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미국의 기조 변환: 미주는 미주의 미주 -> 미주는 미국의 미주  
-> 세계는 미국의 세계  
- 미국의 방어적 먼로주의가 동아시아에 대한 침략주의로 변화하고 있음

#### 2) 1890년, 미국의 부상

\* 1903년 미국해전(해저전선)의 완성: 샌프란시스코에서 마닐라까지

\* 중국을 겨냥한 태평양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봄 -> 미국은 해군력을 확장함

\* 트러스트(기업합병)을 보면서 미국이 각성병립에서 합중연방으로, 지방분치에서 중앙집권으로, 개인주의에서 통일주의로, 자유주의에서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봄 -> 20세기의 거대한 흐름

\* 국내 트러스트가 국제 트러스트로 갈 때 그 해약을 가장 크게 입을 곳이 중국이라고 봄

#### 4. 미국 공화정의 정신: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

\* 양계초는 1903년 신대륙유기에서 가치의 미국과 현실의 미국의 차이를 봄

\* 미국 정신의 퇴색을 아쉬워했으나 이러한 대세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-> 중국은 가치가 아닌 현실에서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봄

\* 1888년 제임스 브라이스의 미국의 공화정에 대한 논평: 브라이스는 토크빌이 염려하듯이 조건의 평등에 의한 민주주의의 전체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데, 미국 민주주의는 이러한 전체정, 폭정을 막을 장치가 있다고 생각함 -> 미국의 민주주의를 두려워할 필

요가 없다 -> 연방제 -> 영국과 같은 앵글로 색슨적 전통에서 탄생한 미국의 법제도가 전 제정을 막아 준다고 봄: 구심력을 구현한 성공한 연방주의에 대한 변호로서 미국의 사례

\* 구심력으로 미국 연방제와 미국 공화국을 본 브라이스에 대해 양계초는 공명함 -> 촌락 사상(지방분권주의)의 제거 -> 중앙집권

\* 미국의 건국사상은 촌락주의였으나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중앙집권으로 변함

## 5. 계몽주의의 기향

\* 중국은 왜 지방주의가 공화정이 될 수 없었나? -> 양계초는 중국은 족민과 족제의 자치는 있었어도 시제(시민제도; 타운 중심의 시민제도, 시민저치)의 자치는 없었다고 봄 -> 종족주의는 근대국가의 기초가 될 수 없음(오늘날 ethnic nationalism과 civic nationalism의 구분과 같음) -> 종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삼합회(친 손문세력) 등 혁명과 비판

\* 개량된 국민을 만든다는 계몽주의적 신민설(자치능력을 갖춘 국민)을 포기하고 황제를 중심으로 몽치자는 주장을 전개함 -> 가치와 현실 사이의 긴장이 사라짐 -> 개명전제론의 등장

\* 제도개혁을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목표로 함